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5. 12. 1.(월) 오전 7: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	책임자	부장	이시종	032-290-2045
		담당자	대리	허아영	032-290-2049

“전문 테마 박물관의 성공모델 제시, 지속 가능한 방문 구조 구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년 연속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돌파

- ‘24년 이어 올해도 100만 명 찾아...박물관의 안정적 성장성과 콘텐츠 저력 확인
- 한글날 행사·기획특별전 개막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 열기 더해
- 연말에도 테마전·유아학습실·나눔행사 등 관람층 확대를 위한 노력 이어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문자’라는 전문 주제의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이는 개관 3년 차 박물관으로서는 드문 기록으로,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 역시 폭넓은 관람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올 한 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1,032,524명(11월 30일 18시 기준)에 이른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 박물관 성장 모델 제시

전 세계적으로 ‘세계문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프랑스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중국세계문자박물관 세 곳뿐이다. 그중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개관 초기부터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규모로 자리 잡으며, 전문 박물관도 충분히 대중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박물관·도서관·문화기관과의 협업 전시를 꾸준히 이어오며 콘텐츠 신뢰도와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해왔다.

지속 방문을 만드는 ‘선순환 콘텐츠 구조’

올해 방문객 100만명 돌파의 핵심에는 10월 9일 한글날 행사 ‘한글로 세계로’가 있다. 하루 동안 2만 3천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광장·도시공간·박물관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박물관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 10월 28일 개막한 특

별전 《천천히 서둘러라: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은 르네상스 출판 혁신을 소개하며, 해외 희귀 고서를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방문 수요를 견인했다. 이처럼 박물관은 '특별전 → 체험 행사 → 시민 참여 프로그램 → 상설 콘텐츠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선순환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도시문화 플랫폼으로의 확장

박물관은 연말에도 다층적인 관람 경험을 선보인다. 상설전시실에서는 '기록'을 주제로 하는 상설 테마전이 12월 16일(화) 개막한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탁본'을 중심으로,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전시가 이어진다. 또한 12월 중순 박물관 전시품을 상징하는 활자를 모티브로 한 야외 조형물이 새롭게 조성돼 야외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이는 박물관을 실내 전시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속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생애주기별 관람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접근

12월 9일(화)부터 21일(일)까지 2주간 시범 운영되는 '유아학습실'은 0~3세 영유아가 신체 감각을 통해 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박물관이 '유아-가족-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포용적 관람 생태계를 구축하는 첫 단계다.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도서 기부와 음악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도 마련해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넓힌다. 웅진씽크빅과 협력해 조성 중인 '열린 독서공간' 역시 시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엄성근 사무총장은 “두 해 연속 100만 관람객 달성은 문자와 기록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전문 콘텐츠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참여와 경험이 공존하는 박물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람시간: 10~18시(입장 마감 17시 30분)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관람료: 무료

- 붙임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월별 관람객 수 통계
2. 이미지 자료 1식(2장). 끝.



[사진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경



[사진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경



[사진3] 2025년 한글날 문화행사



[사진4] 2025년 한글날 문화행사